

학교·교실 바뀌어야 아이들 미래 달라진다

학교의 발견, 교실의 발명

김성원 지음



긴 일자형 복도를 따라 동일한 규모의 교실이 배치된 '편복도 교실'과 복쪽 한쪽에 복도를 배치하고 남쪽에 교실이 배치된 '일자형 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다녔던 학교 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제가 근대 교육을 도입하며 짓기 시작한 '편복도 교실'과 '일자형 학교'는 1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60년대부터 해외 사례를 적용해 다양한 교실 유형과 학교 건축에 나섰다. 그런데 한국은 왜 획일적인 '편복도 교실'과 '일자형 학교' 건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예술과 기술을 놀이처럼'이라는 모토로 'play AT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성원 소장은 신간 '학교의 발견, 교실의 발명'에서 "교사는 물론 건축가들까지 기존의 획일적인 편복도 교실과 일자형 학교에 익숙한 까닭에 공간적 상상을 빈약하고, 21세기 교육을 위한 학습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래 학교사업은 혼란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제 현대 학교의 학습공간 디자인은 개별 교실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아니라 다양한 학습 공간들을 어떻게 혼합 구성할 것이냐로 주안점이 옮겨 가고 있다"면서 "이 책이 미래 학교와 학습공간에 대한 상상을 자극해 기성세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모델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김 소장은 크게 '미래 학교의 특별교실'과 '2차 학습공간', '다름 학습' 등 6부로 나눠 교육건축학의 변화에 따라 발명된 다양한 교실 모델과 2차 학습공간을 소개하면서 21세기 교육을 위한 학



학교공간 디자인이 변화하면 학생들의 습관과 상상력도 달라진다. '가변 열린 교실'로 설계된 미국 '칸 랩 스쿨'.

습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할지에 대한 다채롭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과 너무나 다른 해외 많은 학교들의 '공간 디자인 철학'은 독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해외에서는 '편복도 교실' 외에도 '중복도 교실', '가변확장형 교실', 'L형 교실', '보조공간 결합 교실', '학습 스튜디오', '야외 교실' 등 다양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연구실이 혼합된 교육공간인 미국 캘리포니아 '칸 랩(Lab) 스쿨'은 공용 공간과 교실 사이에 접이식 유리문을 설치, 가변 열린 교실을 적용했다. L형 교실을 도입한 호주 '성 십자가 학교'는 21세기 교육의 이상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협업과 소통, 창의력 개발과 성숙'으로 설정했다. 독일 '랜즈버거 스트라세 학교'는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면서 '공간이 교육방향을 촉발한다'라는 학교의 교육 건축학적 개념을 반영했다.

학교 건물 역시 'STEAM 스튜디오'(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의 학제를 넘는 융합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공간)를 갖추고 지역소멸과 지역공동체 살리기, 고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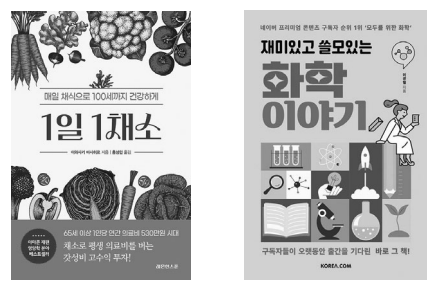
도 도시(수직밀집형 학교) 등 지역특성을 적극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해외 선진적인 교실과 학교 사례를 읽으며 무엇보다 부러운 점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공간 디자인 철학'과 '학교건축 지침'이다. 영국 '브리스틀 메트로폴리탄 칼리지'의 경우 건물을 개축하면서 건축가와 함께 교사·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도 건축 기획에 참여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저자는 "(한국은) 교육적 요구를 공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경제성과 공간 효율성이 여전히 우선이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화석화된 학교 모델과 건축 관행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학교 건축의 역사와 현대 교육공간 모델에 대한 이해 없는 학교 건축행정은 교육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간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의 교실과 학교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화두(話頭)를 던진다. <소동출판사·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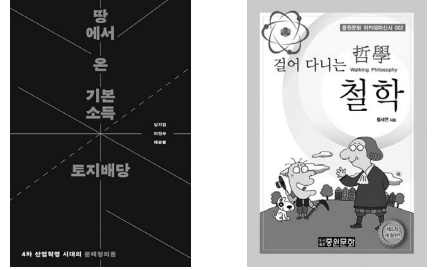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1일 1채소=컨디션 난조의 원인이 채소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는 '신선'하다. 채소를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생활습관병과 비만, 알레르기, 면역 저하, 인지증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신선한 유기농, 제철 채소의 활용법부터 채소의 매력 등을 알려준다. 채소 먹기에 거부감이 있다면 컵라면에 숙주를 넣어 조리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추천한다. <레몬한스톤·1만7000원>



▲재미있고 쓸모있는 화학이야기=소셜 미디어에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세상이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 1위 콘텐츠들을 모아, 알짜배기 지식들을 건져 화학에 얽힌 일상 속 일화들을 쉽게 풀이한다. 흡연, 고함지르기 등 다양한 행동들이 인간의 호르몬 등을 자극하는 화학적 행위라는 사실을 객관적 지식을 근거로 이야기한다. <코리아닷컴·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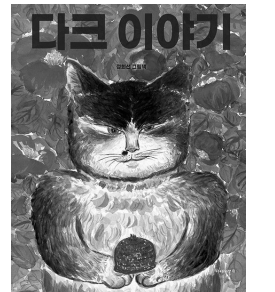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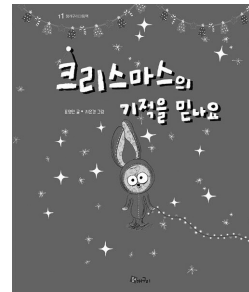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21세기 불평등과 부의 편중의 원인이 된 '토지' 문제부터 분배정의론까지, 계획경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은 1경 48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9배에 달해, 토지 자산의 과평가가 심각한 상황임을 역설하며 문제의 원인까지 근본적으로 분석한다. 부동산 투기는 결국 불로소득이며 여

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부의 분배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들여다 본다. <이상복스·2만원>

▲걸어 다니는 철학=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철학의 근간이 된 변증법, 소피스트들의 비판이나 근대의 칸트·헤겔 등 다양한 철학이 한 권에 담겼다. 맑스, 사르트르 등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이 민중 속으로 쉽게 파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힌다. 그러면서 18세기 근대 관념론에 멈춰 서 있는 학교 철학, 형이상학 등에 일침을 가하고 보수적 철학교육을 벗어나 철학을 쉽게 가르치라는 메시지까지 담았다. <중원문화·2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계란 좀 빌려줄래요=친구들과 유치원에서 쿠키를 만든 '비키'는 신이 났다. 엄마에게 멋진 쿠키를 자랑하려 뛰어오다가 눈길에 넘어지고 만다. 비키를 달래주며 엄마는 새 쿠키를 같이 만들어보라고 제안한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재료인 계란이 냉장고에 없다. 크리스마스 전에 꼭 쿠키를 만들고 싶은 바람에 202호, 302호... 이웃집을 방문해 본다. <뜨인돌어린이·1만5000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어요=집 나온 토끼 인형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경찰서와 백화점을 찾아가봤지만 좀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알 수 없다. 발바닥에 새겨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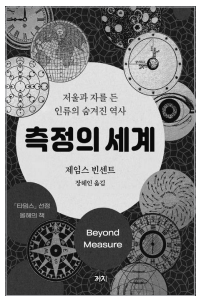
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원 또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에게 토끼 인형을 되찾기를 기도한다. <창개구리·1만5000원>

▲다크 이야기=동백나무 밑에서 살던 길고양이 '다크'는 친구가 생겼다. 날마다 찾아오던 아이가 간식을 챙겨주고 말도 걸어주면서 가까워진 것.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이는 더는 길고양이를 찾지 않았다. 다크는 온몸을 상처로 새기면서 겨울을 보냈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곳곳하게 거리 고양이로서 정체성을 되찾는다. <이야기꽃·1만8000원>

숫자 세고 세계 측정하며 모든 순간을 이해한 인류의 역사

측정의 세계

제임스 빈센트 지음, 장혜인 옮김



웬지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 하루의 끝에 휴대폰 어플을 체크해 본다. 다 이어트에 한창인 사람은 수시로 변화하는 몸무게를 잰다. 스마트폰 들여다본 시간을 체크하며 내일은 적게 사용해야겠다 다짐도 한다. 우리는 언제나 주변의 모든 것을 재고 가늠하며 살고 있다.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 제임스 빈센트의 '측정의 세계-저울과 자를 든 인류의 숨겨진 역사'는 개수를 세고,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던 인류의 모든 순간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측정은 사회의 거울이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여주는 관심의 형식"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측정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요구와 욕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인류와 측정이 서로 얽히며 발전해온 과정을 역사, 과학, 문화,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측정의 세계와 인류사를 새롭게 바라본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측정 방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기준도 점점 더 엄밀해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역사에 수많은 개인들의 치열한 탐구와 시대정신의 변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준 길이를 1미터가 탄생한 배경에는 프랑스 혁명 이 있다. 프랑스 지식인 학자들은 도량형을 표준화하면 봉건주의 생활의 불균형을 일부 제거하고 공화정의 정치적 평등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학자들은 새로운 길이 단위인 미터를 정의하는 계획에 7년을 헌신했고 그 결과 미터는 '북극점에서부터 적도까지 이르는 거리의 1000만 분의 1'로 표준화되었다. 과학적 계산의 산물이자 혁명의 심판을 거친 미터법은 전 세계에 서 채택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데 공헌했다. 에릭 홉스봄

은 "어떤 측면에서 미터법이 프랑스 혁명의 가장 오래 지속되고 보편적인 결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인류가 최초로 측정을 한 시기를 탐구하기 위해 최초의 문자가 탄생한 곳으로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 나일 강의 수위를 재던 이집트인, 고유한 방법으로 하늘의 움직임을 읽던 고대 마야인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2장에서는 최초의 국가가 형성될 즈음에 측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봄과 3-4장에서는 갈릴레오, 뉴턴 등의 업적 등을 통해 중세와 르네상스의 측정 방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언급한다.

측정과 사회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짚어본 5-8장에서는 18세기 미국의 개척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도를 그린 역사와 엄청난 힘을 갖게 된 통계의 탄생을 다룬다. 9장에서는 길로그래프의 정의가 새로 쓰이는 과정을 만날 수 있으며 10장에서는 지나치게 커져버린 현대 사회에서의 측정의 힘을 지적한다. <까치·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